

성경에 나오는 메데 (Medes) 사람들이 요즈음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쿠르드 (Kurd) 족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때 부터 지금까지 나라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목 민족이다. 작년 10월 1일 이방 민족에 관한 예언자들을 공부할 때 메데가 (쿠르드족) 나왔었다.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 에 ‘앗시리아 와 메데 (쿠르드족)’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는데, 남방 유다는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방 유다보다 먼저 앗시리아가 망하기 때문이다. B.C. 612 년에 앗시리아는 ‘바벨론 (이라크) 과 메데 (쿠르드족)’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메데는 앗시리아에 붙고, 앗시리아가 멸망할 때 메데는 바벨론 (이라크) 과 연합한다.” :: 메데인 = ‘용감한 전사’ 라는 뜻.

중동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 (메데의 후손들) 을 모두 합치면 3천 5백만이나 된다고 한다. 터키의 동부 산악 지대에는 무려 터키 인구의 20% 에 해당하는 1500 만명이 살고 있고, 이란에 800 만명, 이라크에 650 만명이 그리고 나머지는 시리아 (200 만명) 와 아르메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6·25 전쟁이 났을 때, 터키는 한국에 파병을 하였는데 이 때 한국에 온 터키 군인의 80% 가 ‘쿠르드족’ (메데족) 이다.

따라서 성경을 읽다가 ‘메데족’ 이 나오면,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쿠르드족’ 인데, 한국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된다. ::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조금 동쪽에 위치해 있으면 ‘근동’ 이라고 불렀고, 아랍연맹 처럼 조금더 동쪽에 있으면 ‘중동’, 요즈음의 아시아에 있으면 ‘극동’ 이라고 불렀다. 이란 (페르시아), 터키 (돌궐족의 후예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아랍연맹이 아니다.

쿠르드족 (메데의 후예) 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나라가 없어서 ‘유랑민족’ 혹은 ‘중동의 집시’ 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라크에 거주하는 ‘쿠르드족’ 은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을 도와서, 현재 미국의 지원으로 쿠르드 자치국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치적으로 정부, 의회,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이 (대부분 수니파 = 능력에 따라 지도자를 세우자는 수니파 = 순맹이파), 최근에 이라크 (시아파 = 씨앗파 = 혈통으로 지도자를 세우자는 시아파) 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라크 (바벨론) 의 동쪽에 붙어 있는 ‘이란 (페르시아)’ 은 ‘시아파의 맹주’이며, 능력으로 지도자를 세우자는 ‘수니파의 맹주’는 ‘사우디 아라비아’이다. 따라서 시아파인 이란과 이라크는 당연히 수니파인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80%가 수니파) 의 분리 독립을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인 터키의 눈치를 보며 중동 정세가 어지러워질까봐 반대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친했고 (그래서 이란과 핵 협상을 하였음), 현재의 대통령인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친하여,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 했을 때,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의 무기를 무려 23조원어치나 사준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한 이란과의 핵 협상을 바보같은 협상이라고 맹비난 하였음)

혈통으로 지도자를 세우자는 시아파 (씨앗파) 는 당연히 혈통의 인구가 적어서, 전체 무슬림 인구의 10% 정도 밖에 안되고, 능력으로 지도자를 세우자는 수니파는 전체 무슬림 인구의 90% 정도 된다. 전통적으로 혈통 (씨앗) 으로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아파는 혈통이 적어서 그런지 성향이 아주 과격했고, 능력으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니파 (순맹이파) 는 인구가 많아서 그랬는지 전통적으로 온건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금은 퇴출 되었지만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북부에 위치한 수니파 IS (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 연합) 는 사람의 목을 자르는등 너무 과격한 모습을 보여서, 다른 온건한 수니파 국가에게 외면을 당하였다. 현재 IS 는

망해서 아시아의 다른 이슬람 국가로 본거지를 옮겼다고 한다.

메데족 (쿠르드족) 은 BC 1400~1000년 경 이란 (페르시아) 지방에서 다른 민족과 같이 이동하여 왔다. 쿠르드족 (메데족) 은 이란 중부 고원지대, 이라크 북부, 아르메니아 남부, 터키 동부 등에 퍼져서 유목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중동 지방과 같은 아랍인종이 아니다. 언어는 인도유럽어족 이란어파에 속하는 ‘쿠르드어’ 를 독자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유의 생활 풍습도 유지하고 있다. 타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자주 받아서, 아랍인이 아니면서 처음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민족이 ‘쿠르드족’ 이다.

미국은 쿠르드족을 후세인으로 부터 보호 하려고 이라크와의 전쟁중에 이라크 북부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 (No Flying Zone) 을 설정한 바 있고, 쿠르드족은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을 틈타 2003 년 이라크 북쪽에 쿠르드 자치 정부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 를 세웠다. :: Kurdistan 은 ‘쿠르드족의 땅’ 이란 뜻이다.

쿠르드 자치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지역에는 이라크 전체 원유의 30~40% 가 매장 되어 있고, 옛날부터 쿠르드족 (메데족) 이 살고 있어서 현재 쿠르드 자치정부는 독립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라크는 북부의 원유 매장량때문에 쿠르드족의 독립을 반대하며 서로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변의 중동 나라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들이 이라크의 쿠르드족을 따라서 독립을 시도할까봐, 현재 주변의 나라들은 이라크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반대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0세기 초 쿠르드족에게 첫 번째 독립의 기회가 찾아 온다. 1920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 · 프랑스 등 연합군은 전쟁에서 진 ‘오스만 튀르크 제국’ 과 ‘세브르 조약’ 을 맺는다. 당시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리아 · 이라크 · 쿠르디스탄 등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민족주의자인 ‘케말 파샤’ 가 이에 반발해, ‘터키 공화국’ 을 수립하고, 연합군과 새 조약을 체결하면서 ‘세브르 조약’ 은 무효가 된다.

이에 ‘쿠르디스탄’ 독립의 꿈은 좌절되었고, 쿠르드 지역은 터키 · 이란 · 이라크 · 시리아 · 아르메니아 등으로 나뉘어 통치된다. 이란의 쿠르드인들도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소련의 지원 아래 쿠르드 독립국을 세웠으나, 소련군이 철수하자 이란군에 의해 진압당한다.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메데의 후예인 용맹한 쿠르드인들이, 후세인이 미국과 벌인 ‘이라크 전쟁’ 을 틈타 미국을 도왔고, 현재는 쿠르드족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엄청나게 매장된 석유를 이용하여 과연 독립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